성실과 창의

많은 가족과 함께한 유년시절

저는 4형제자매 사이에서 유년시절을 보냈었습니다.

위에 누나가 둘이 있는 생활을 하다가 7살 어린 남동생이 태어났습니다.

그 때부터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서 누나들과 동생을 돌보며 형 노릇을 하였는데 이런 제가 유별나게 가족을 생각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시절 동생을 데리고 잠시 밖을 나왔었던 때였습니다.

- 그 당시 집 근처로 동생을 데리고 갔었는데 사람이 많아 잠시 동생에게 신경을 못썼었습니다.
- 그 때 저를 놓친 동생은 저를 찾는다며 다른 장소로 이동해버렸고 사람이 좀 줄고나서 저는 동생을 잃어버린 것을 깨달았습니다.
- 그 당시 정말 다양한 생각이 들었고 동생을 찾아야겠다고 가족에게 알린 다음 온 동네를 찾아다녔습니다. 당시 해가 떨어질 때까지 뛰어다녔는데 동생을 못찾아 암담한 상황에서 다행히 부모님이 아시는 어른께서 동 생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집으로 데려와주셨습니다.
- 그 당시 느꼈던 동생에 대한 미안함과 제대로 동생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을 많이 느끼게 된 경험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기에 저는 특히나 가족들을 많이 신경쓰게 되었고 무슨 일을 하던 그 일에 대한 책임감이 남다 르게 높아 최선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성실함을 추구하게된 학창생활

저는 친구들과 보내기보다 부모님이 운영하는 가게로 가서 가게일을 도왔습니다.

부모님은 예전부터 슈퍼마켓을 운영하셨는데 학교가 끝나면 곧장 가게로 달려가고 했습니다.

딱히 어떤 일이 있다기보다는 가족과 같이 있던 시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학원을 다니게 되어 가게를 보는 시간은 줄어들었지만 최근까지도 주말에 조금씩 시간을 활용해서 가게일 부담을 줄여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당시 선생님들이 가게 근처에 사시면서 요즘도 오가면서 방문하시는데, 그 때마다 격려해주시고 당시의 저를 칭찬해주시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런 학창시절부터 이어진 생활덕분에 지금까지도 예전의 성실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군대에서부터 이어진 업무경험

전 ROTC 학군단을 다니면서 정보장교를 맡았었습니다.

이 때부터 학군단의 일정과 활동일지를 관리했었습니다.

특히나 군대에 들어갔을 때에는 신병교육대에 들어가 막 군대에 들어온 훈련병들에 대한 신상관리, 교육훈련 등을 맡았습니다.

이 때 제가 주로관리하던 항목은 바로 훈련성적이었습니다.

신병교육대에서는 정해진 교육기간 안에 모든 훈련을 마치기 위해서 훈련일정을 빽빽하게 설계합니다.

그래도 시간이 부족하여 야간에도 일부 교육을 진행하는 등 교육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인성검사부분인데 한 기수에 300명 정도의 훈련병이 제한된 컴퓨터를 활용해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야간에도 휘하 조교들이 통솔하여 검사를 진행하는 등 검사에 에러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까 고민하여 새로운 방법을 고안하였습니다.

다른 중대에 협조를 요청해서 기존 기수들의 데이터를 받고 이걸 분석해서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아도 성적을 볼 수 있도록 작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야간에 통제하는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었고 다른 중대에서도 요청해서 대대 전체의 부담을 줄일수 있었습니다.

성실과 창의

이 때 느낀 점이 기존 것에서 조금 발전한 것이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대를 나온 다음에는 비젼포스라는 카드단말기회사에 들어갔었습니다.

여기에서는 포스와 카드단말기를 설치 및 유지관리, 서류관리, 전화응대 등의 역활을 맡았습니다.

특히나 포스프로그램의 경우 가맹점에서 문의가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그 때 회사가 대리점의 형태라 프로그램사에 문의하데 프로그램사도 확인하고 연락하겠다고 답변을 미루는 등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그 상황에서 수천개의 가맹점을 관리하면서 가맹점의 질문사항들을 다 대응하는게 어려웠습니다.
- 그래서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탐구하여 프로그램사에서도 제대로 대응안되던 문제인 매출관리부분을 해결 해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있기에 저는 생각을 더 깊게하며 보다 나은 제가 되기위해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 극복을 위한 인내

저는 항상 스스로를 비교해가며 살아왔습니다.

보다 더 잘 할수는 없었는지 보다 좋은 방법은 없었는지 항상 되새겨보고는 합니다.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거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흔히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듯이, 스스로를 돌아보지않는 사람에게 발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가장 큰 장점은 몇번을 실패하더라도 몇번을 안좋은 소리를 듣더라도 끝까지 해보려하는 열정입니다.

지금 인내한만큼 저 스스로 성장하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게 해결되었다고 생각될 때까지 몰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곧 제가 하는 일에 대해 집중하는 것이고,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극복하여 스스로를 발전 시킬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성실과 창의로 보다 회사에 이바지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귀사에 제가 입사하게 된다면 보다 진취적이고 항상 나아가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저는 스스로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사회생활을 하면서 배웠지만 조금만 눈을 돌리면 제가 모르는 기술이 넘쳐나고 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만약 제가 입사한다면 우선 현재 회사에서 사용되는 기술을 확인하고 제 것으로 만들겠습니다.

무엇이든 목표를 잡고 향하려면 먼저 자신의 위치를 알아야하듯이 현재의 제가 회사에 이바지할 방안을 천천히 찾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모두 숙달하고 제것으로 만들었을 때 이를 연구하여 보다 실용적인 기술로 발전시켜보겠습니다.